

#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늘은 30,40 세대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그루터기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젊은이들에게 신앙적인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6월 24일 수요일 예배는 베트남 공동체 주관으로 드립니다. 함께 협력하여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3. 다음 주일 예배 후 공동체 인도자 성경공부가 있습니다(3시 15분, 느헤미야실, 7과만 연습).
4.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찬송, 기도, 안건 토의).
5. 금요일기도회가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 기도가 있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6. 심방을 원하는 성도는 신청 바랍니다.
7. 함께 신앙생활하던 추미선 권사님(조현구 집사)이 지난 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목요일에 발인하였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장례 준비에 수고한 성도, 예배로 동참한 성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 오늘 점심 교제 떡을 김은희 집사(고석승 집사)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24호 2020.06.14

##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일예배	수 7:30pm
금요일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아동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금주기도  
김다운 자매  
다음주일  
성다운 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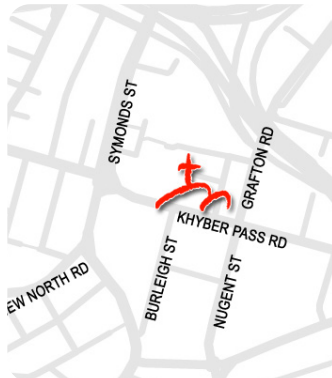
주	일	예	배	시간	인도자
찬	양	-----	-----	2부 오전 11시 20분	주일 찬양단
예	배	로부름	-----	1부 오후 1시	인도자
✳	찬	송	-----	-----	이태한 목사
✳	신	앙	고백	-----	다함께
찬	송	-----	-----	-----	다함께
대	표	기	도	-----	다함께
성	경	봉	독	-----	손조훈 집사
설	교	-----	-----	-----	인도자
찬	송	-----	-----	-----	이태한 목사
헌	금	기	도	-----	그루터기 특송
교	회	소	식	-----	인도자
✳	응	답	송	-----	다같이
✳	축	도	-----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	요	예	배	시간	인도자
찬	송	-----	-----	오후 7시 30분	박후임 권사
기	도	-----	-----	-----	다함께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12:41-48
설	교	-----	-----	-----	많이 많은 자의 충성
찬	송	-----	-----	-----	이태한 목사
주	기	도	-----	-----	321장
주	기	도	-----	-----	다같이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 6월 교회사역일지

6월 14일 (주일)  
그루터기 주일 (3040)  
6월 24일 (수)  
베트남 공동체 주관 예배  
6월 28일 (주일)  
성찬주일,  
유아세례,  
권사 기도회

### 6/7월 기도순서

6월 21일 (주일)  
이광희 A 장로  
6월 24일 (수)  
공동체 주관  
6월 28일 (주일)  
김철재 집사  
7월 1일 (수)  
신장우 집사

### 6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 선교란

### 이번 주는 남 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김현태 선교사 소식입니다.

계속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가 뉴질랜드에는 거의 종식되어 간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안하신지요? 여기는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주의 은혜로 계속된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1. 사역 소식:** Lockdown(국가 봉쇄) 조치로 2달간 예배가 중단된 가운데 간간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현지 상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지는 대낮 갱단들의 범위가 증가되고 또 대부분 일을 못하여 생활이 너무 어렵고 교회에 나와서 평상시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그리웠다고 했습니다.

**2. 이동부 초청:** 이동부가 몇 달 동안 교회와 학교를 못 가고 방치되어 안타까운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100여 명 초청하여 3일간 말씀을 나누고 성경공부 책과 전도지와 만든 마스크와 간식 팩을 나눠주며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멀리서도 소리를 지르며 반갑게 달려와 안기던 아이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조용히 들어와 무표정하게 의자에 앉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교회는 늘 함께 하며 계속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곁에 있다고 위로하였는데 많은 부모들로부터 격려와 감사 인사가 있었습니다.

**3. 나눔과 돌봄:**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 교회는 식량 팩을 만들어 나눠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이 없는 유스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기철로 접어들면서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과 숲에서 자는 노숙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방문하여 예수님 사랑을 나누며 격려하였는데 예상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숲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일 노동자들의 생계가 문제가 되어 교회에 양식을 비치해 놓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4. 주변 소식:** 생활수단의 기본적인 것 외에 모든 것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느라 다들 예민해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쓰는 것과 쇼핑을 위하여 줄 서는 것이 불편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하지만 주변에 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냥 보고만 있기도 힘들어서 간간이 식량을 나누고 교훈도 하지만 남에 대한 의존성이 높으나 구제도 교회가 할 일이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마음으로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선교사의 안전과 건강 성령 충만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 계속되는 예배 중단으로 인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 교회와 주변에 직업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거룩함을 소멸하지 않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는 교회가 되도록.
2. 서로 섬기고, 아끼는 성도들이 되어 주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3. 영육의 곤고와 고통에 있는 성도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 나눔란

### 2020년 6월 7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노아> 창세기 8:1-12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해와 달과 별만 빼고는 온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는 노아와 방주를 기억하신 하나님으로부터(8:1)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억 하사’의 뜻**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잊었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항상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 하사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며(출 2:24-25) 또한 롯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때 이루어졌습니다(창 19:29). 구원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롯이지만 하나님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난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15:4)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보내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으며 십자가 한쪽 편이 강도와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방주 안의 짐승들처럼 신실하게 보호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사 43:1)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2) ‘기억 하사’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8:1). 홍수 심판에는 끝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환난도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고전 10:13).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홍수는 반드시 물러갑니다. 동풍을 보내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출 14:21)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8:1) 말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일어난 사건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3) ‘기억 하사’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동력도 도구도 없던 방주 안에서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은 ‘점점’ 물러가고(8:3) ‘점점’ 줄어들었습니다(8:5). 하나님께서 ‘점점’ 천천히 역사하신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함입니다. 물이 줄어든 후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를 보고도(8:11) 노아는 방주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노아처럼 내가 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8:15).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서 홍수와 홍해를 마르게 하는 성령의 바람을 보내 주십니다(8:1).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나타나 광야에 길이 사막에 강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사 43:19). 홍수를 시작하신 분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실천하며 기다리는 삶이 믿음입니다.

고통과 재난 속에서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애 3:19-22).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갈보리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 주간 성경 묵상: 시편 34 - 61편

#### 금주의 암송 말씀 - 요한복음 1: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